

'공인인증서보다 편리하고 안전'

전북은행, 금융결제원과 공동 개발 클라우드 기반 '금융인증서' 서비스 출시

지난 10일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의 '금융인증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금융인증서는 전북은행이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인증서비스로 금융인증서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이

용 편의성'이다. 공인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이하 공인인증서)에서는 특수 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 비밀번호를 설정했던 반면에 금융인증서는 6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간편비밀번호나 패드·지문·안면 등으로 로그인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면서 1년마다 갱신을 해야했던 번거로움을 해소돼 이용자의 편의성이 강화된다.

보안성 측면에서도 다른 인증서보다 우수하다. 분실 우려가 높은 하드웨어

저장방식이 아닌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암호화해 저장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해당 클라우드는 고객이 연결한 기기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이중암호화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인증내역 관리, 부정사용방지시스템, 고객 맞춤 보안설정 등도 부가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타인 도용 방지도 가능해 더 안전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인증서는 지난 10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정부24·청약함 등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에서 발급한 금융인증서를 다른은행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는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출시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금융인증서가 누구에게나 편리한 인증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공간드림센터 활용 창업 지원 LX,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김정렬)가 동반성장상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2020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을 수상했다.

LX는 지난 10일 서울 정경련화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 문화 확산 공공기관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2020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은 동반성장에 기여한 단체 및 유공자를 포상해 동반성장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LX는 'LX공간드림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창업 지원과 'LX해외진출센터'를 통한 43개 민간기업과 해외 동반진출을 유도해 지난해 294.2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LX는 공간정보 산업 진흥을 위한 '상생 희망펀드' 145억 원을 조성해 117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한편 이달까지 희망펀드를 2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과 국토교통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도 지원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김기승 LX 부사장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청렴계약지킴센터 설치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의 실현을 위해 '청렴계약지킴센터'를 설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청렴계약지킴센터'는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계약상대자의 공익 보호를 위해 설치됐다.

센터는 '생각은 청렴하게 계약은 공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투명한 계약과정 공개 ▲공익신고자의 보호 ▲부정부패 신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팔문 사장은 "청렴계약지킴센터 설치로 더욱더 공정한 계약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렴계약지킴센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사신 왼쪽부터 (췌)에이치에너지 합일환대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LX 김기승 부사장.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농진청,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

아이디어 기획 부문... '디지털 데이터북' 우수사례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2020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디지털 데이터북' 프로그램이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디지털 데이터북'은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에서 개발한 작물 재배·환경 연구정보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작물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계획하고 재배 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 축적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농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이 우리 농업이 나아가길 길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가 디지털로 연결되는 식량작물을 연구하기 위해 수시로 변화하는 논·밭작물 재배

및 환경 데이터를 생성되는 시점마다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디지털 데이터북'을 활용하면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종자의 생산·관리 이력 추적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데이터의 데이터 즉 설명 데이터(메타데이터) 확보를 가능케 해 국립연구소, 대학, 산업체 등에서의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중부작물부 조승호 부장은 "스마트 농업은 빅데이터(거대자료)가 기반이 되는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이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렇게 축적된 빅데이터를 점진적으로 농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연구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내수·수출중기 성장·혁신 지원

전북중기청, 내년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내년 1월 15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수출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까지 2021년 제1차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수출바우처 사업은 12가지 분류 6천 여개의 해외 진출 마케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1차 모집은 내년 전체 예산의 약 70%에 해당하는 733억원 규모로 2150개사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수출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을 전라 지원 하는 '혁신바우처'로 나누어 모집한다.

선정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바

우처를 지급하며,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 전략, 디자인, 홍보,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달라진 사항으로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셀스 등 신성장 및 K-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바우처 내 별도 지원 트랙(신산업·K-E&B)을 신설한 점으로, 이 세부사업에 약 30억 규모가 지원된다.

또한, 올해 혁신바우처는 지난 해와는 달리 수출단계와 무관하게 기업 수요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지역 혁신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수시 점검 및 부정수급 적발 시 원스톱 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

템 구축 검토, 청렴교육 정례화 등 제도적 기반도 보강할 방침이다.

안남우 청장은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2020년 9월까지의 수출이 13.6%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증가율인 3.0%보다 10.6%포인트 높고, 내수기업의 41.8%가 수출 첫걸음을 떼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2021년 1월 15일까지이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어린이 전기안전 캠페인' 민간기업과 협업 '결실'

전기안전공사, 안전문화대상 행안부장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 구호용품 제공 앞장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지난 10일 '2020 대한민국 안전문화대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부문 단체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모하는 안전문화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교육 홍보 활동이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하는 안전 분야 최고 상이다.

공사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민간기업, 자치단체와의 생활안전 캠페인 협력 사업을 통해 안전문화운동의 저변을 넓히고 어린이 감전사고 감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공사는 지난 몇 년 간 LG 전자(가전), 푸르밀(유제품), 클레보스(위생용품), SY폴리텍(필터탭) 등 소비자 접점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손잡고, 생활 속 전기안전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펼쳐왔다.

협력기업이 생산한 제품 포장과 사용설명서에 안전요령이나 상담 안내 전화번호를 명기해 소비자로 하여금 전기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취지다.

전기화재나 감전사고가 주거시설

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10세 이하 어린이들이라는 점을 감안, 가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삽화나 이미지를 활용해 알기 쉽게 담았다.

공사는 나아가 우유, 물티슈 등 협력기업 제품을 구매해 지역 독거노인이나 임산부 가구에 전하는 후원사업도 함께 펼쳤다.

특히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역 자치단체와 연계,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공공기관과 민간, 자치단체가 공히 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면서, 기업으로서는 캠페인 관련 제품의 매출을 올리고, 지역사회 또한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이룬 셈이다.

실제로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15세미만 어린이청소년 감전사고 점유율이 꾸준히 감소하며 최근 3년 연속 한 자리 수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성완 사장은 "앞으로 전기안전은 물론, 코로나 방역 등 생활안전까지 우리 사회에 안전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연대의 끈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수상과 함께 받은 포상금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쓸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민·관·학 공동으로 '전북형 디지털 뉴딜' 동참

국민연금,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와 지난 1년간 성과·내년 추진사항 점검 회의 진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과 도내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이하 연구회, 회장 유철중 전북대 교수)는 지난 10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1년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매일 정례 모임을 통해 빅데이터 기술발전 및 전라북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왔다. 원광대학교 LINC+ 사업단의 후원을 받아 선진 사례 연구 등을 주제로 하는 15건의 세미나와 전북형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9차례 토론회 등을 진행했으며,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중장기 과제 발굴 및 2021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회원사가 전주시 데이터 분석·공유 통합 플랫폼 사업을 주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회의 활동은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 타 시에도 모범사례로 전파되고 있다.

내년에는 전북 특화 사업 발굴을 위해 금융(핀테크)·농식품·관광·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별 빅데이터 심층 연구로 전문성을 높이고 참여기관 확대, 국가 R&D사업 참여, 연구회 사단

법인과 추진, 타 시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연구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철중 회장을 비롯한 박형숙(전북도 정보화총괄과장), 최준범(전주시 스마트시티과장), 송문규(원광대 LINC+사업단장), 박광진(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은 "도내 민·관·학을 연결해 빅데이터 사업 발굴 및 수행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전북형 뉴딜사업의 초석이 되는 융·복합연구회로 거듭나고 있다"며 "전북형 디지털 뉴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연구회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일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오픈해 외부이용자가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주시와 '해고 없는 도시 전주'를 위한 고용 분야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업종을 심층 분석하는 등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공단과 구축해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